

고대법학

2016 Spring, Vol. 12

발행일 2016년 5월 1일, 제12호 발행인 김규완 편집인 이황 편집장 김현중(7기) 편집부 김소정(7기), 임성현(7기), 조승원(7기), 고현정(8기), 류수민(8기), 신혜지(8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7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SPRING

초록의 대지, 꿈틀거리는 봄

PRIDE

피어오르는 열정, 깨어있는 정신으로

BLOOM

그대 만개하라, 더 큰 세상에서

- 02 LECTURE SUMMARY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 04 INTERVIEW 이대희 교수 인터뷰
- 06 KU FOCUS 인공지능 강연 취재기
- 08 LAW FIRM INTERN 인턴수기
- 10 GRADUATE INTERVIEW 졸업생 인터뷰
- 11 STUDENT'S ASSOCIATION 학생회 취임사 및 퇴임사



정의를 위한 우리의 길

명사초청 특강 VIA JURIS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어 ‘고려대 로스쿨만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VIA JURIS], 올해는 로스쿨 제도의 존재이유와 나아갈 바를 진단한 이용훈 석좌교수의 강연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강연을 진행한 우창록 변호사와 김종빈 변호사는 각각 변호사와 검사, 나아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제1강 이용훈 석좌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회고와 향후 발전 방향

3월 9일 이용훈 석좌교수의 특강으로 8기를 위한 VIA JURIS 수업이 첫 문을 열었다. 이용훈 석좌교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제14기 대법원장을 역임한 이후 2011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사법부에서 수십 년을 종사한 이용훈 교수의 식견을 진지한 관심과 함께 경청할 수 있었다.

로스쿨 제도의 의의

이날 강연은 최근 논란이 된 사법시험 준치 문제에 대한 논평으로 시작되었다. 이용훈 교수는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법학전문대학원과 투 트랙으로 병존한다면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설립과정과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용훈 교수는 종래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에서, 법률만을 공부한 법조인 배출하는 고도 기술산업사회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법률가의 일상은 매 순간마다 처음 보는 생경한 사건을 접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해당 사건을 기술하는 용어조차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처음 로스쿨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스스로도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였지만 이러한 사회 변화를 더욱 뼈저리게 체감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를 느끼고 로스쿨 설립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미래 영역

이용훈 교수는 현재 사법부가 관여하는 사법분쟁 영역의 법률시장 규모는 채 4조가 되지 않는데 실제 이를 변호사 수로 나누면 평균 실수입은 연 1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 시신을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법의 적용보다는 입법보좌관과 같이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고 근본적인 작업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로스쿨이야말로 이러한 입법 참여에 있어서 적합한 인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식품 안전에 관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식품안전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나 법률만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식품 안전을 공부한 법률가가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변호사 모델

이용훈 교수는 국가의 통치권력은 미리 제정된 법에 따른 원칙, 제약, 절차에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통령들 중 다수가 로스쿨 출신 법률가인 것을 예시하며 법률가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KL**



제2강 우창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선택과 지향, 지난 40년의 회고와 우리 법조의 미래

3월 30일, 두 번째 VIA JURIS 수업이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변호사가 된 이후 매 순간 후회 없고 즐거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꿈을 가지라

지금의 우창록 변호사가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가 가진 꿈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고, 이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공부한 결과,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최연소 사시합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갖는다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갈 때의 기쁨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발견하고 선택하라

그는 각자의 꿈을 위한 선택을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변호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국내 법률 시장은 법률시장의 개방, 인공지능변호사의 개발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영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계의 암담한 미래를 예측하곤 한다. 그러나 우 변호사는 조금만 생각의 틀을 넓히면, 오히려 다양한 업무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법조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실력과 판단력으로 도전하라

우창록 변호사는 이제 막 법률공부에 발을 들여놓은 8기 신입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3가지를 전했다. 우선, '진짜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법전문원에서 보내는 3년 동안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실력과 더불어 '건전한 판단력'을 가져야 함을 언급했다. 정의감과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판단력의 함양은 변호사의 기본 소양이라는 것이다. 셋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것에 주저 없이 도전할 것을 권했다. 특히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따른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L**



제3강 김종빈 변호사(희우 고문, 전 검찰총장)

대한민국 검사에게 필요한 덕목

4월 6일, 세 번째 강연에 나선 김종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30여 년간의 검사경력을 거친 후 지난 2005년 검찰총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면서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운 한편, 후배들에게 그가 생각하는 검사의 덕목을 소개하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검찰제도의 특징

형사사법절차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갈래로 발전했다. 영미법계의 형사재판은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듣고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대륙법계 형사사법절차의 특징은 국가가 강력하고 우월적인 형벌권을 가지고 진실규명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검찰제도는 이러한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대륙법계 형사사법절차의 강한 형벌권은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의 가혹행위와 법원의 권한남용을 정당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프랑크령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혹한 수사와 법원의 직권남용을 견제할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고안된 것이 검찰제도이다. 즉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법원의 재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검사는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다른 대륙법계의 국가에 비해 훨씬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약해진 것을 지적하며 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제도가 지닌 본래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가 가져야 할 덕목

김종빈 변호사는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필요한 특별한 다섯 가지 덕목을 소개했다. 그것은 열정, 균형감, 청렴함, 전문성, 그리고 인간애이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균형감은 법조인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야기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야말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균형감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검사는 업무 수행 중 있을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신념을 지켜야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간애일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인간애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사회적 흉기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간애를 가질 것을 한 번 더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학생들은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열정적인 강연에 박수갈채를 보냈다.**KL**

IT법·지적재산권법 전문가 이대희 교수 인터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그 사이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이 여러 차례 눈길을 끌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날이 빨라져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는 요즘, 개인정보 관련 사안들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을 졸업하신 후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 저작권위원회, WIPO Domainnamepanelist로 활동하고 IT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전문가인 이대희 교수를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인정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 이외에도 해당 정보만 갖고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만일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보았을 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최근 알파고와의 바둑 경기를 통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기계가 바둑을 두어 프로 기사를 이길 정도라면 그간 있어왔던 개인정보침해와는 또 다른 유형의 침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요?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Face Recognition Technology) 또한 인공지능의 일종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와 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이는 20대 백인 여성 혹은 30대 흑인 남성 등의 얼굴을 이미 판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개인정보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켜 어떤 인물의 사진을 보고 해당 개인을 특정하고 그 개인의 특성에 대해 알아내어 이를 상업 기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원칙을 제창한다거나 등의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법리를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Q 현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관련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최근에 관심을 받은 것으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스퀘어 외벽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하여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파사드가 디지털 사이니지의 일종입니다. 외국에서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서와 같이 행인의 얼굴을 인식한 후 성별 및 나이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디지털사이니지가 개발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합법화됐습니다만 외국에서와 같이 프라이버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Q 앞으로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너무 강화하기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일례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은 수년간의 부작용에 대한 기록과 'bing'이라는 검색 업체에 사람들이 검색한 것을 바탕으로 항우울제 인파록세틴(Paroxetine)과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프라바스타틴

(Pravastatin)을 함께 복용하면 당뇨에 이를 정도로 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를 기존의 방식대로 분석했다면 수없이 많은 약의 조합을 고려해야 하기에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약품 개발, 개인 맞춤형 광고나 상품 추천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 활용 쪽에도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다만, 한번 새어나간 개인 정보를 다시 주어 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그 경계선을 잘 설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Q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다양해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개인정보보호 원칙들을 탄탄히 익히고 새로운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이자면 앞으로는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활용되는 일이 많아질 만큼 국제적인 분쟁이 잦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KL

임성현 법학전문대학원 7기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동정

· 윤남근 교수

윤남근 교수는 지난 3월 22일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중재인으로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하태훈 교수

참여연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참여연대는 3월 5일 서울 건지동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하태훈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하태훈 교수는 정경자 인하대 로스쿨 교수,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게 된다.

· 김정호 교수

2016년 3월 1일자로 한국상사법학회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상사법학회는 상법 학계를 대표하는 모학회에 해당한다.

· 박종수 교수

2월 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만든 변호사 500명 규모의 중국 산동성 최대 로펌인 중성청태법률사무소(Jointide Lawfirm)와 고려대 법전원 간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턴학생 파견 등 우리 학교와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산동성 제남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9개의 분사무소개설 이외에 청도에 특허대리사무소와 지적재산권유한고사가 설치되어 있다.

해상법, 조세법, 기업법, 특허법 등 다양한 업무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 내 20강 로펌에 해당한다. 특히 국제법률전문위원회는 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교포변호사 김윤국을 책임자로 한국법무전문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한국기업 및 한국인에 최우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재형 교수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정부 대표(국제법 자문역)로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온실가스감축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호주국립대학과 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세미나(시드니, 2016년 2월 10일~11일)에 참석하여 파리협정의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고, 김8장 법률사무소에서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편 FTA 활용 제고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메이조대학, 나고야, 2월 27일)에도 참석하여 앞으로의 국제통상규범 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로투스 오픈 렉처 시리즈_Theme 2016 [과학기술과 법]

인공지능, 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다



2016년 3월 10일과 3월 17일, '과학기술과 법(Science, Technology & Law)'이라는 주제로 두 번의 강연이 신법학관 401B호에서 열렸다. 강연을 주관한 명순구 교수연구실은 위 주제를 7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 고려대학교 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7개의 세부주제는 '인공지능, 나노,

물과 지중환경, 인간증강(Human

Augmentation), 바이오 인공지능,

정보저장 기술, IT:흥미, 이상 그리고 현실'로, 지난 3월 10일에는 '인공지능', 3월 17일에는 '나노'를 주제로 각각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번 호에서는 첫 강연이었던 <제1강 -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실는다.

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과학기술'

첫 강연의 서두에서 명순구 교수는 강연 포스터에 담긴 '법률가에게 법의 패러다임을 고민하게 하는 모티브'라는 문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법은 규율대상인 사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법률가는 단순히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만큼 큰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강연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결이 성사된 시기라 그 설명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김현철 교수가 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법'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연은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김현철 교수가 진행하였다. 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과학기술과 법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며 강연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삶의 양식,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게 되어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이며 그것이 곧 법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문제,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그 활용을 규제하는 문제, 심지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를 지

원하는 문제까지 모든 단계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요구되며 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게 된다.

본격적인 강연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종교의 시대, 자연과학의 시대를 지나 공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기계를 통해 신체적 한계의 극복하였다. 공학의 시대를 지나 정보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가 극복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

창의성의 영역에 진입한 인공지능

인간의 인지적 한계가 극복되는 것도 신체적 한계가 극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 순차적, 단순, 반복 자동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오늘날의 최신기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느껴졌다. 이러한 순차적, 단순, 반복 자동화가 가능하면 그 영역은 결국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영역은 우리가 지능이라고 여겨왔던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나타나게 된다(엄밀히 말하자면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껏 오해가 있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알파고와의 대국에서도 보았듯 '창의성'이라고 여겨지던 부분도 그 실체가 의심되며 결국 계산에 의해 판단될 영역으로 생각되어 가고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순차적, 단순, 반복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체될 직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도 순차적, 단순, 반복 활동은 대체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러한 업

무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아마도 법조인이 하게 될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법조인과 법조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라고 느꼈다.

드론과 생체 컴퓨팅, 법의 진화를 요구하다

강연의 마지막 내용은 향후 5년 안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될 것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드론이나 3D 프린팅 등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었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부 주에서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행정상 제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 드론의 경우 향후 그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프라이버시 등 법익의 침해가능성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고 규제하는 방안이 머지않아 더욱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대두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생체 컴퓨팅 부분이었다. 이미 이루어진 많은 연구 성과들을 통해 벌써 시각을 잃어도 볼 수 있는 등 장애가 사라지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으나, 신체에 직접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서는 다양한 법의 침해 가능성 등이 결부되어 있는 이상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그 결과물 또한 법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과 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인간 VS 컴퓨터,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라

끝으로 김현철 교수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과거 체스 대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인간 개인의 뛰어난 능력, 인간의 집단지성, 인공지능 등 다양한 모든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뛰어난 컴퓨터의 능력을 활용한 인간의 활동이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프로세스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효과를 낼 것이며(이를 인간과 컴퓨터의 공존시대라 언급),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역량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막대한 공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산업경제 시대로 전환되면서도 농업경제 직업의 80%가 사라진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하고 극복해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KL**

EDITOR'S REPORT

인공지능, 현실법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다

법학만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다른 분야 사람들의 관점을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강연을 통해 법학에서 정의하는 개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명순구 교수는 강연 후 질문과정에서 지금껏 법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민법에서는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나누고 자연인은 주체성을 인정하였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결코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강연자는 인공지능과 같은 실체에 대해서는 과연 그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의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법학자와 과학자의 대화를 통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법이 과거의 관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어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김현중 법학전문대학원 7기

Adieu 선배님들, Bonjour 후배님들



2016년 2월 25일에 치러진 졸업식



2016년 2월 29일에 개최된 입학식

졸업식 & 입학식 주인공들, 자~ 환하게 스마일!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어 2월 2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8기 학생들의 입학식이 열렸다. 올해에도 입학식 이후에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신입생들이 모두 모여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졸업과 입학의 통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법학도로서 새 출발을 한 학생들의 모습을 담았다.

로펌 인턴, 생생한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두 명의 재학생이 인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누가 됐든, '다음 주자'들이 좀 더 준비된 인재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담겼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덕목은 바로 '자신감'과 '여유'다. 스스로 치열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당당할 것, 더불어 인간미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희은(법률사무소 광장) 법학전문대학원 6기

1 자기소개서 작성

동아리 등 활동 경험 저는 법학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 경험은 다양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와 연관 지어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이라면 많은 적든 상관없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경험한 모의 재판 동아리 활동을 길고 상세하게 썼습니다. 어떤 주제로 하였고 무슨 역할을 맡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조사를 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를 모두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면을 쓰고 변론하는 일이 즐거워 승무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재가 많지 않더라도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점에 집중해서 쓰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동아리나 학회 활동이 여러 가지라도 이를 나열식으로 쓰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특성을 드러낼 수 있거나 관심 분야로 택한 영역과 관련된 경험을 비중 있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CLEC 조정클리닉과 형사클리닉에서 활동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어 썼습니다. 조정클리닉 활동은 민사 분야의 경험을, 형사클리닉에서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기록을 보았던 활동은 형사 분야의 경험을 보여주기에 알맞아 송무에 대한 관심을 보다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성적 본인의 학점이 다소 낮더라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방법은 많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실제 공부 계획을 자세히 써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성적이 상승세라는 점을 강조해도 됩니다. 아니면, 기초법학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본 과목은 빼먹지 않고 모두 수강하였다거나, 남들보다 많은 과목을 들었고 그 결과 많이 배웠다고 설명하여도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자기소개서에서는 면접에서도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쓰기보다는 적당한 때 언급해주면 충분할 것입니다.

2 면접

광장에서는 예외적으로 2학년 여름 인턴을 뽑을 때 면접을 봅니다만 2학년 겨울 인턴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면접을 봅니다. 워낙 채용 인원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질문은 회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신한테 어떤 질문이 중점적으로 올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예상 질문의 목록을 같은 비중으로 준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미 자신이 강점으로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없으며 그러므로 약점에 더욱 잘 대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직장경력 등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사회성이나 적극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과제

광장은 인턴 업무를 개별팀에 들어가서 수행합니다. 저는 송무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소장, 의견서, 내용증명우편,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였습니다. 다른 팀과는 달리 특별법보다 민법 쟁점 위주로 출제되어서 조금이나마 익숙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생 처음 보는 법이 나오거나 답을 모르겠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면 다들 모를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회사에서 실제 수입한 사건을 각색하여 과제가 나오므로 인턴들이 답을 전부 맞히려라는 기대도 적습니다. 이럴 때는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근거를 찾아 논리적으로 일관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은 완벽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형식적 완결성은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출력해서 읽어보면 글의 전체적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주술 호응이 맞는지, 오타자나 어색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출시간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다. 특히 마감시간 정각에 보내도 수신 서버에는 몇 초 차이로 1분 늦은 시간으로 기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날은 과제가 없을 줄 알고 빈손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과제를 주셔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참고할 교재를 첫날부터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태도

최대한 밝고 예의바른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보다는, 활발하게 늘 웃으면서 지내는 사람이 눈에 띄고 인상도 좋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분들을 뵈면 제출한 과제가 떠올라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5 기타 조언

첫째, 학교생활에서 당장은 괴롭더라도 들어야 할 과목은 제때 듣는 게 좋습니다. 과제 대부분이 민법과 회사법에서 배운 내용으로 해결되므로 열심히 들어두어야 합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한다면 로펌뿐 아니라 어느 법조영역에 가시든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동기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바랍니다. 늘 생활을 같이하므로 서로 힘든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위로가 되고 앞으로 같은 영역에서 일해 나갈 사람들이니 잘 지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펌으로 진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다양한 회사에 인턴을 나가보길 바랍니다. 대형 로펌은 채용 시기가 가장 이르고 그만큼 빨리 종료되어 나중에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 실습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펌과 업무나 분위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거나 읽어보면 글의 전체적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주술 호응이 맞는지, 오타자나 어색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출시간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KU**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잊지 마세요

하선혜(법률사무소 화우) 법학전문대학원 6기

1 자기소개서 작성

아무리 글쓰기에 자신이 있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만큼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퇴고를 반복하면 글이 점점 나아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스스로만의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각 회사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여 언급하는 정도는 하였으나, 보다 특화된 글을 쓰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설명회나 홈페이지 등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라든지, 중요시하는 가치관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2 면접

인턴 면접이든 채용 면접이든 가리지 않고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그중에서도 특정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관심 분야, 스트레스 해소법 등은 확실히 대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약점에 대한 질문에도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여서 관심 분야에 관한 질문이 약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본인만의 사소한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된 분야나 이슈 정도를 언급해서도 됩니다. 그러면 관련한 전문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평소 관심에 있어서 무엇을 했는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컨대 저작권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 표절 문제에 관심이 간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묻는 식입니다. 물론 평소에 관심 분야를 주제로 한 수업을 듣거나 학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더라도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과제

이번 겨울 화우 인턴의 경우 2주 동안 7개의 과제를 수행하여 과제 수는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만 자유로운 자료 참조가 가능하였습니다. 소장이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서면 과제 외에 토론 과제와 세미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 세미나 과제는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주고 PPT를 제작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발화능력이 주요 평가 요소이지만, 이번 과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주어져 여러 쟁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비중 있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무를 희망 분야로 정하신 분들은 이때 잘하시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이제 송무 변호사의 발표능력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4 마음가짐

사실 이번 방식이 굉장히 짧았고 게다가 3학년을 앞두고 있어 인턴을 나가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고, 소중하게 얻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이 마지막이고 안 되면 끝이라는 절박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인턴 경험 때 지나치게 긴장을 하는 바람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오히려 노력했습니다. 의욕은 보이되 불안감은 내비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면 과제나 발표 성과, 인턴 동기들이나 변호사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고민했던 것들이 무색할 만큼 인턴 생활에서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회사의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화우의 경우 인턴 목걸이를 패용하고 다니면 지나가던 변호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인사해주시곤 하셨던 것이 기억



에 남습니다. 화기에애하고 따뜻한 분위기여서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으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듯해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변호사 분들께서 과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평가받는 느낌에서 벗어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5 학업과 성적

기본과목 성적, 특히 민법 성적이 비중이 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기본 민법 과목을 못했다고 해서 상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법연습이나 민사소송법 등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하여 과제를 잘 해내는 길도 있습니다. 특히 2학년 여름, 겨울 인턴은 민사법과 회사법 위주로 과제가 출제되므로 기본과목을 평소 제대로 공부해두고, 법문서작성이나 민사기록연습 수업을 잘 활용하시면 과제를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기타 조언

공부에 지치더라도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취업 과정에서는 인간관계의 역할이 큼니다. 알음알음 면접 기회를 얻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고, 로펌 면접에서 교우관계가 어떤지 묻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높은 학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판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이와 같은 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힘든 생활 서로 의지하며 돈독히 지내면 좋겠습니다. **KU**

김소정 법학전문대학원 7기 6호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정유한 변호사 질문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 마라

이번 고대법학 12호 졸업생 인터뷰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은 정유한 변호사이다. 로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 이후 현재 근황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5기로 졸업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Finance)과 공정거래(Fair Trade Law), 인사노무(Human Resource), 기업형사(Criminal) 등의 분야에서 1년차 주니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 실무에 임하면서 학생 때와 달리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면?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덕목들이 요구된다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함, 꼼꼼함, 적극성, 사람됨 등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덕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덕성들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부터 차근차근 익히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했던 계기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치주의가 발달해 있는 선진 국가들을 살펴보니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사회 전 분야에 넓게 포진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로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장래에 제가 원하는 분야의 진로를 찾았을 때 주저 없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업 이외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새내기 봄 저녁에 중앙광장 잔디 위에서 조원들과 함께 HOT, SES 노래를 부르며 음주가무 했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잠실에서 고연전 농구를 함께 즐겼던 기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혹은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좋은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한분을 꼽아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지도교수님이셨던 이주원 교수님이 가장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역시 이주원 교수님의 형사소송법과 형사기록연습입니다. 수업 내용이 알차л 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지금도 공부에 매진하는 후배들에게 수석 졸업자로서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

저는 비록 많은 사람들 앞이라도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다. 교재의 서술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시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질문은 본인의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펌 생활을 꿈꾸는 도전적인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펌은 지적 욕구로 충만하고 열정적이며 도전적인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삶과 일의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모든 변호사님들은 치열하게 삶과 일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스스로를 마음껏 성장시키고 외연을 확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L**

고연정 법학전문대학원 8기

FUND REPORT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설립

2016년의 첫 개강총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이 97%의 찬성으로 설립되었다. 9대 학생회 '동고동락'은 연대와 지지가 필요한 공익변호사 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지원하고자 입후보 시부터 '공익 인권 변호사 지원기금 펀드'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개강당일 '교재나눔 베품시장'을 통해 공익기금의 설립 취지를 알리며 269,350원의 수익금 전액인을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기부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은 고려대로스쿨출신 공익변호사의 배출을 장려하고, 고려대로스쿨출신 공익변호사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출신의 공익변호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고대출신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지원하고(소라미, 김동현변호사), 공익기금을 통해 공익인권법활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금은 '1,000원의 약속' 캠페인을 통해 정기기부받게 되며 총회 당일 100여 명이 넘는 신청 용지가 모였다. 현재 로스쿨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후원하고자 하는 회원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2016년 상반기에는 텀블러 공동사업 등을 계획하여 외부에도 홍보할 예정이다.

조승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취임사 및 퇴임사

새롭게, 더 큰 모습으로 뭉겠습니다

제9대 학생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된 하태승(7기), 성규빈(7기) 원우는 학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려대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할 것을 다짐했고, 지난 1년의 임기를 마친 제8대 학생회 학생회장 고지웅(6기), 부학생회장 김병준(6기) 또한 그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준 학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작년 12월, 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제8대 학생회에는 감사를, 임기 전부터 발로 뛰며 수고한 제9대 학생회에는 기대와 응원을 전한다.



좌부터
신임 학생회장 하태승
부학생회장 성규빈

2016 제9대 학생회 취임사

사법개혁 최전선에서 여러분을 대표하겠습니다

제9대 학생회 [동고동락] 회장단 하태승·성규빈

I. 우선 제8대 학생회 '연결고리'의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회장단 고지웅·김병준 선배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위해, 그리고 지난 1년간 우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발 벗고 뛰셨습니다. 취임사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개인적인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고지웅·김병준 선배님. 지난 28일간 자는 시간 빼고 모든 고생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360명 원우들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감탄했고, 빼어난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항상 친형님, 친오빠들처럼 생각하는 두 분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I. 원우님 여러분에게 새롭게 학생회를 꾸려나갈 저희들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학생회 '동고동락'은 사법개혁 완수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II. 지난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우리들이 당면한 험로에는 아직도 '국회'라는 거대한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장기적 투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개별 의원에 대한 설득작업, 국회 내 자문기구로 꾸러질 협의체에 대한 감시작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 소속 개별 의원들은 그동안 대한변협, 고시생모임 등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 상당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법학협이나 각종 학생회에게 많은 자료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 개별 의원에 대한 설득작업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학생회에 새로 신설한 '로스쿨 제도발전 위원회'를 통해 지난 투쟁기간 동안 저희가 제작한 자료 그리고 새롭게 제작될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앞설 것입니다. 법학협의 타학교 학생회와 발맞추어, 사법개혁을 위한 대규모 설득작업의 최선봉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설득작업과 병행하여 새로 구성될 협의체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한 '로스쿨 제도발전'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는 유의미한 협의체가 되도록 끈질긴 감시작업을 할 것입니다.

IV. 사법개혁을 위한 장기전이란 단순히 당면한 위협인 대국회 투쟁만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로스쿨 제도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로스쿨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대 학생회의 선거 공약이었던 '공익변호사지원기금'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우리 로스쿨 원우들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정의로운 법률가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겠습니다. 그동안 참여가 미진했던 비법률 봉사 참여율을 끌어올려 우리 원우님들의 이타적인 마음을 알려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부터 커리큘럼과 학사행정을 개선하여,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력 있고, 유능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도 실력 있고, 우리 사회의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알려겠습니다!

V.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올 1년간, 원우들과 함께 고생하며 함께 즐기는 학생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님들, 올 한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제9대 학생회 [동고동락] 울림

하태승, 성규빈, 박예람, 김남규, 김민우, 김재이, 김유나, 김유진, 박동렬, 박성연, 성준경, 신재욱, 신현우, 양동욱, 오유진, 이규정, 이남영, 이명연, 이우진, 이현주, 이현주, 장 용, 정문기, 정미진, 정희민, 조승현, 주미경, 한석영

2015 제8대 학생회 퇴임사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제8대 학생회 [연결고리] 회장단 고지웅·김병준

4기 선배님들의 변신 도시력을 준비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는데 임기가 끝나버려서 당황스러운 기분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급하게 팀을 꾸려 나온 회장단이었기에 그만큼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1년 내내 부족하고 서투른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회 임원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새터, 어울림픽,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지지와 단결된 모습은 회장단이 외부에 나가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결고리'를 표방하며 직을 맡았으나, 이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평소 재학생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학생회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재학생-재학생, 재학생-졸업생 간 연결고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점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12월 사태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고려대 법전원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자 같았나 생각해보며, 저희는 이 연결고리가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하면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시기에 바통(baton)을 넘기게 되어 제9대 학생회장단 하태승·성규빈 원우 및 고려대학교 법전원 전체 원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직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임기 이후에도 신임 회장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하게 사태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학생회장단 하태승·성규빈 학우와 1달간 같이 일해 보니 정말 열정 넘치고 능력 있는 분들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저희 회장단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분들인 만큼 고려대 법전원을 훨씬 더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니 지금과 같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지만,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인생에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 법전원 모든 원우 여러분, 특히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우리 '연결고리' 집행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2016년에는 고려대 법전원의 모든 식구들이 각자 뜻한 신바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L**

제8대 학생회 [연결고리] 울림

고지웅, 김병준, 김봉성, 최보광, 문예현, 왕지은, 이효진, 조희경, 박민규, 정해수, 김다인, 박지아, 정다미, 이지원, 홍찬기, 이우진, 박성준, 우수경, 정지영, 이상욱, 박동열, 이우진, 이지현, 이남영, 김유나, 양정훈, 이나연, 김남규, 박진지, 신재욱, 김유진, 이명연, 이규정, 주미경, 남영우, 박성연, 성규빈, 신현우, 하태승

조승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고대법대 111년 사료 모으기 운동

고대 창립 111주년을 맞아 법대의 빛나는 전통을 모아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를 비추고자 사료 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집기간

2016년 5월 5일 ~ 10월 말까지

수집자료

- 물품 : 교복, 모자, 배지, 현판, 기념품 등
- 공식문서 : 졸업장, 학위증, 성적표 등 오래된 공식문서
- 간행물 : 팸플릿, 소식지 등
- 학습관련 문서 : 교과서, 강의안, 강의노트 등
- 기타 문서 : 동기 수첩, 동아리 간행물 등
- 사진 및 영상 : 입학 사진, 학교생활 사진, 졸업사진, 준공식, 체육대회 등
- 수상 : 상장, 표창장, 공로패, 우승기 등
- 기타 고대법대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1기 관련 자료

활 용

- 고대법대 박물관(가칭)에 전시
- CJ법학관 5층, 2017. 5. 5 정식 개관 예정
- 기증된 자료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통해 철저히 관리
- 법전원 홈페이지에 고대법대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예 우

- 사료에 기증자 이름을 기재하여 함께 전시
- 기증증서 교부
- 기증자 명단을 고대법대 박물관에 영구 전시

기증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우편 등기 발송
- 보내기 어려운 기증품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문 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

